

격 월 간 발 행
2022.6/7
vol.290

사람 세상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아동. 아직도 매년 수만 명이 기형아로 태어나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한 벗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 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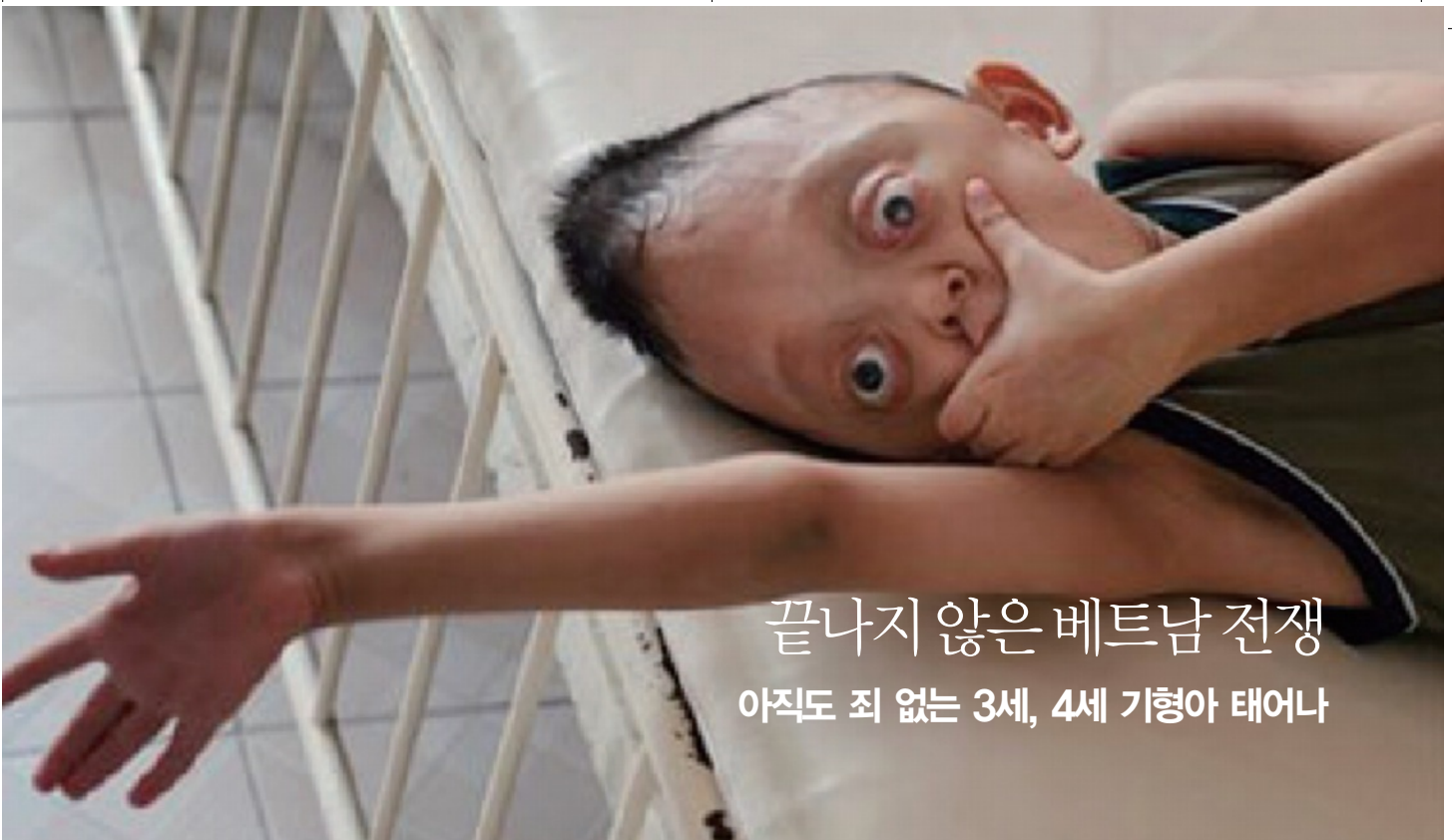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끝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 아직도 죄 없는 3세, 4세 기형아 태어나

‘휠체어를 보내주세요!’

지난 6월, 베트남 고엽제피해자협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한뼘이 휠체어를 기증한다는 소식을 현기목 선생을 통해 듣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 선생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이동봉사회원으로 고엽제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이어지는 편지내용이 놀라웠다.

베트남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고엽제피해자들입니다. 장애가 심해 돈을 벌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나 미국으로부터 휠체어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싼 휠체어는 한국돈으로 8만원정도인데, 이마저 살 형편이 못됩니다. 현재 고엽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3백만 명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2009년 베트남 정부발표-연간 5만명의 기형아 출현).

중고라도 좋으니 휠체어를 보내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미국의 죄악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베트남 480만명, 미국·한국 등 참전국 군인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은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독극물로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고 단 1g으로 2만명을 죽일 수 있다. 또 동물과 식물에 축적되어 40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질환을 일으키며 3세, 4세까지 피해를 입힌다.

니들이 알아서 해

베트남에서는 고엽제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기형아 출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엽제 살포는 국제법 위반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과 뉴질랜드, 호주 참전군인에게만 보상 해주고 한국과 베트남의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한다. 한국은 미국 때문에 참전했는데!

30대도 중입니다

보낼 수 있는 휠체어가 30대밖에 안된다고 했더니 그래도 보내달란다. 오죽하면 그럴까?



최고의 선물 휠체어

걷지 못해 바닥에 앉은 사람이 식탁이나 침대,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안기거나 등에 업혀야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휠체어는 눈을 마주 할 수 있는 ‘높이’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선택’을 준다. 비로소 자기 삶을 살게 하는 정신의 기상을 경험한다. 휠체어를 두고 ‘기적을 낳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유이다.

휠체어를 보내주세요

비장애인은 휠체어의 가치를 모른다. 우리도 그랬다. 30년 전만 해도 부모들은 장애자녀에게 휠체어 줄 생각을 못했다. 지금 남아시아 국가가 그렇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필리핀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휠체어는 아직도 그림의 떡이다.

한뼉의 휠체어 해외기증

한국에서 휠체어를 빈곤국에 기증하는 기관은 한뼉이 유일하다. 이는 ‘휠체어날개달기’ 회원 140명이 매월

기부해주는 덕분이다. 이분들의 성금으로 2011년부터 휠체어와 유모차를 빈곤 국에 보내고 있다. 국내 유일의 휠체어 기부자 황기순 씨는 한뼉을 통해 해외기증을 해왔지만 지금은 중단상태이다.

베트남에 휠체어 30대, 유모차 200대



한뼉이 보관한 휠체어는 몇 대 안 되지만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동휠체어 30대, 장애아동을 위한 유모차 200대. 그러나 수동휠체어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고휠체어를 기증해주세요!

전화 주시면 받으려 합니다.(전화 02-393-0661)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탈출 여행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집에 머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탈출 여행이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관광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1회당 장애인 3명과 보조인 3명으로 제한하였는데, 신청자가 많아 당초 3회에서 5회로 늘려 진행되었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1박 2일 일정

사전답사를 통해 선정한 관광코스는 여유로운 일정과 해변산책, 전망 좋은 숙소 이용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서해안 : 선유도 ▶ 변산 낙조 ▶ 격포 바다데크 ▶ 부안 내소사 ▶ 서울

동해안 : 묵호 스카이벨리 ▶ 삼척 장미공원 ▶ 옥계 한화로 ▶

정동진 선크루즈 ▶ 서울

장애인 등 39명 참여

장애인과 보조인 참가비 각 7만원, 나머지 관광경비는 한빛재단의 후원금(420만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장애인 15명, 보조인 10명 인솔 및 기사 등 총 39명.

이번 행사를 통해 한빛은 중증장애인 관광의 시행착오와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회를 만들어준 한빛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

지난 6월 하순에 가진 주간보호실 식구들의 영화구경, 이게 얼마 만인가! 2020년 1월의 야외활동이 마지막이었으니 꼭 2년 5개월 만의 외출이다. 그동안 근처 공원 산책도 못하고 실내에 갇혀 너무나 지루하고 갑갑한 나날이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야외활동 시작이다. 드디어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난다!



애경산업이 제공한 행복나들이

영화구경과 외식, 카페에서 한가로이 커피까지 곁들이며 코로나 탈출을 실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행복나들이였다. 영화관의 휠체어좌석이 적어 우리 식구 일부만 참석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활기 넘치는 걸음걸이를 바라보며 지켜온 코로나-19의 터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루였다.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 숙명여자대학교 유서정, 김아진
- 홍익대학교 이해원

선물 고맙습니다

- 이준표 이용자 어머니님 - 휴대용 인덕션 1구
- 푸드뱅크 - 빵 60개

지축복지관소식

가정의 달 5월, 즐거운 잔치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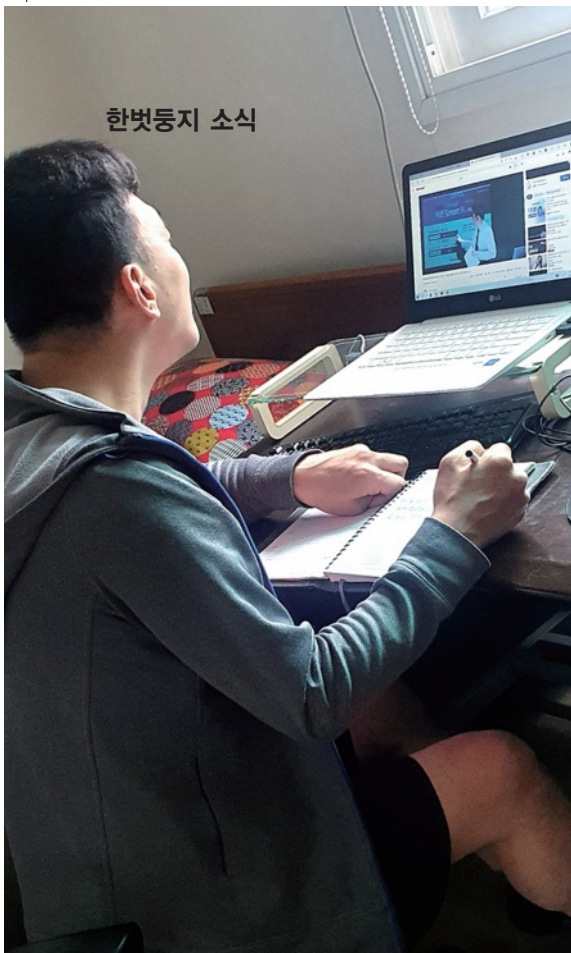
가정의 달을 맞아 먼저 어르신들에게 장수 기원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LH공사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제공하였고, '따뜻한 밥상'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선물과 가족놀이 행사도 베풀었습니다.

하하! 호호! 주민놀이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주민놀이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찾아가는 놀이프로그램인 '놀이유랑극단' 운영,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장기·바둑대회'도 곁들였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주민 모두 즐겁고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지축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굳게 닫힌 주용 씨 방

분주하고 정신없는 등지에는 굳게 닫힌 방이 하나 있다. 고참 박주용 씨의 방이다. 점심 먹으러 거실로 나올 때라야 비로소 얼굴을 보인다. 오전 내내 어느 기업의 인터넷 검색 재택근무 때문이다. 점심 식사 후 산책을 다녀온 오후엔 다시 문이 닫힌다. 또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인터넷으로 전산회계 시험준비에 열심이다. 주용 씨의 집념과 성실은 반드시 결실을 볼 것이다. 파이팅!

오늘 내 생일이예요!



오늘은 열다섯 살 오상윤 군(뇌병변)의 생일이다. 엄마가 왔다! 케이크와 맛있는 과자며 음료수도 사오셨다. 촛불도 켜고 생일축하 노래도 불러주었다. 짹짹 박수. 엄마와 사진도 찍고, 오늘은 내가 최고다. '상윤이 생일 축하해!' 우리 상윤이 신나는 날, 행복한 날!

기부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4월 17일 ~ 6월 16일 ()안은 횟수)

강순기 1만(3)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1만(2) 고유미 1만(2)
 광봉현 1만(2) 구혜림 1만(2) 권명현 5천(2) 권미정 3만(2) 권영수 15만(1)
 길 현 5천(2) 김간란 5만(2) 김명순 1만(2) 김미진 2만(2) 김민서 5천(2)
 김석점 1만(2) 김선헌 1만(2) 김성길 1만(1) 김승빈 5천(2) 김여은 2만(2)
 김영진 1만(2) 김예찬 1만(2) 김윤근 1만(2) 김윤희 1만(2) 김인곤 1만(2)
 김인숙 1만(2) 김종호 5만(2) 김태일 1만(1) 김한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성준 1만(2) 박지원 1만(2) 박찬울 1만(2)
 박해진 1만(2) 박희수 3만(2) 백승열 4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옥진 1만(2) 송은숙 1만(2) 송재하 1만(2)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원석범 2만(2) 유정택 10만(2) 윤덕수 2만(1) 윤일심 3만(2) 윤정에 1만(2)
 윤태훈 1만(2) 이경진 1만(2) 이대환 1만(2)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수경 3만(2) 이옥순 1만(2)
 이윤경진보 5천(1) 이재호 1만(2) 이지영 1만(2) 이태균 5만(2)
 이태환 1만(2) 이현주 5천(2) 이해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재창 3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영진 1만(2) 정완교 1만(2)
 제갈윤 1만(2)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1) 조민진 2만(1) 조병훈 3만(2)
 조성운 5만(2) 조은미 5천(2)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1)
 (주)삼솔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2만(2) 차민우 1만(1) 채순옥 2만
 (2) 천병수 1만(2)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최순우 1만(2)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한혜림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서강어린이집 201,000원 열림교회 10만(2)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개인]

- 김영신 기저귀 / 정재덕 모친 빵 등 / 송재하 과자 / 유선민 음료
- 조가영 빅파이 등 음료 / 박주용 부모님 식재료 / 국기호 참외
- 익명 기저귀 등 / 남진숙 스웨터 / 오상윤 모친 케이크 등
- 이웃주민 과자 / 김미경 아이스크림 / 김영신 양말 등
- 유선민 도너츠 / 홍기탁 쌀20kg 2포대 / 노영진 간식

[단체]

- 예당식품 음료 / 마포장애인복지관 박카스 /
-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 우진학교 우유 /
- 순복음교회 쌀10kg 24포대, 식재료 / 우진학교 우유 /
- 베이디어 수건 / 부흥세탁소 계란, 수박,

한벗재단 소식

지금 미얀마는?

미얀마에서 보내온 편지

「군부는 이제 시민항쟁을 제압했다고 대외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곤과 만달레이 등 대도시에는 간간히 총성이 울리고, 시민 게릴라에 의한 폭탄 투하도 발생합니다. 소수민족 거주지역에는 아직도 전투가 계속됩니다. 지난달에는 한벗이 돕는 양곤의 '달라'에 있는 사원 학교 근처에서 시민 한 명이 피살되었습니다. 30만명이 사는 달라는 현재 차량이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시간 송전 제한과 야간 통행금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호텔에서만 머물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달라사원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합창단을 육성할 계획인 '달라' 사원학교 보육원생들은 작년, 코로나와 시민항쟁으로 인해 급식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고아들만 남기고 모두 고향으로 귀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육원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현재 1,100명이나 됩니다.

미얀마 방문 10월로 연기

아직 치안이 안정되지 못해 예정한 8월 방문을 10월로 연기합니다. 그러나 유모차는 8월 중 보낼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 연락주세요.

미얀마 한벗센터 건립

지난 소식지에 알렸듯이 한벗의 미얀마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작은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비 출연을 간청합니다.

- 건립비 출연해주신 분(6월) :
김윤원 50만원, 백진양 100만원, 김자희 100만원
- 건립비 송금계좌 : 국민은행 / 763601-04-155077.
예금주. 한벗재단



미얀마 군부의 시민군 거주지 폭격

윤광이의 하루 후원회원 중, 한벗이 펴낸 책, '공주님의 치마'를 받지 못한 분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위) 왼쪽부터 최경리 원장, 최경림 교수, 최에스터 원장, 양현옥 교수, 권기남 원장
(아래 왼쪽) 얼굴 뿐 아니라 팔, 손 마사지까지
(아래 오른쪽) 저, 예뻐졌지요?(시각장애인 참가자)

봉사일정 : 7월 23일, 8월 27일, 9월 23일. 오후 3시~5시
신청 : 02)393-0661

교수님과 피부미용실 원장님들의 봉사

한국미용학회 피부분과위원회 소속 대학 피부과 교수님들과 피부미용실 원장님들로 구성된 봉사팀이 7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4분만 받았는데 7월 23일(토) 2회부터는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특별기부금 감사드립니다〉

서울장신대의 윤동령 교수님

100만원을 특별기부해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따님과 함께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이매리 선생님

달라스 후원회원으로 고국에 정착한 분이 3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김옥주 사장부부 신품 운동복 400벌

미얀마 봉사를 떠날 김옥주·정순이 부부가 7월말 사업을 정리하며 기증해주셨습니다.

휠체어 잘 사용했습니다

방한 중 휠체어를 빌려 가셨던 미국인 두 명이 본국의

로 들어가며 10만원씩 특별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국기호 감정평가사님의 참외

어쩌면 이렇게 참외가 달지요? 나누어 잘 먹었습니다.

임연하 님

사무국에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임연하님이 카스테라 등을 선물해주셨네요.

‘김미현’ 님과 ‘뉴라이프 교회’의 연락을 고대합니다.

지난 5월, 80만원을 입금해주신 김미현 선생님 그리고 90만원을 보내주신 ‘뉴라이프 교회’의 연락처를 몰라 애태우고 있습니다. 인사조차 올리지 못하면, 저희는 너무 무겁습니다. 연락 : 02)393-0661



코로나를 벗어던진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한빛의 장애인들도 야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2년 4월 ~ 5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미국 교민 후원금(달러, 칼린)〉

지난 호 소식지 기사 중 3~4월분 내역에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 킬린 교민 명단 중, 성인숙, 최정임 각 \$25을 ▶ 각 \$30로 고칩니다.
- 조용순 님 \$20을 누락했습니다.
- '공주님의 치마' 특별후원금 중 김지영(사우스캐롤라이나) \$100을 ▶ 추경진(사우스캐롤라이나) \$100로 고칩니다.

〈2022년 5-6월〉 ()은 개월 수

• 달러(\$1,240)

곽영애 \$20(2) 김애숙 \$20(2) \$김윤원 \$200(2) 김익태 \$20(2) 송순선 \$20(2)
스텔라 \$150(2) 장덕환 \$100(2) 조대웅 \$20(2) 지나 김 \$20(2) 케니 김 \$30(2)
Qick Car \$20(2)

• 킬린(\$790)

고향미 \$20(2) 김 글라라 \$20(2) 김은희 \$20(2) 김데레사 \$20(2) 김태자 \$20
김혜중 \$20(2) 미영 로사 \$20 박순화 \$20(2) 백수산나 \$20(2) 베로니카 \$20(2)
성인숙 \$30(2) 송영희 \$20(2) 이사벨라 \$20(2) 이영란 \$20(2) 이엘리자벳 \$20
이정숙 \$20(2) 조마리나 \$25(2) 조용순 \$20(2) 최정임 \$30(2) 허양욱 \$20(2)

‘공주님의 치마’ 책 보고 기부해주신 분(킬린) : 박혜자 \$50 변명숙 \$50

새로 가입하신 분 환영합니다!(킬린) : 김태자, 미영 로사, 이엘리자벳

〈한빛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객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1) 김관중(2)
김대현(2) 김명문(2) 김미영(2) 김수영(1)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1) 이지영(2) 이형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1)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규영(1) 주우익(2)
채정예(1) 최수진(1) 최원진(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현승혜(1)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완(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4)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 항(1)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1) 김화중(2)
나호진(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백지웅(3) 서동범(2)
서미란(2) 서영란(1) 석지민(1) 석지은(1)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정석(2)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윤경재(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민(2) 이명옥(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상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상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미아1)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옥자(2) 임정순(2) 장관용(1)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1)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명선(2) 최소희(2) 최중문(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호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1)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경희(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2) 현영돈(2) **이상 15,000원**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1)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3) 김용신(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1) 이남숙(2) 이미경A(1) 이상규(2)
이상권(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원기(2)
조윤식(2) 최경희(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1)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A(2) 신화용(2) 오청근(2)
윤경자(2)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1) 정병배(2)
최종락(3)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익규/구자명(1)
김지웅(2) 김현수(2) 김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3)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1) 구태언(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안성환(2)
오선환(2) 어재형/신지영(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2)

이상 100,000원

채진석 이사(2) **이상 150,000원**

명지춘해병원 교회(1) **이상 90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애(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1)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중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주연(1)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1)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2) 한충길(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미(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1)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1)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정연희(2) 조민숙(1)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김혜명(2) 이승훈(2) 최정희(2)
강옥순(2) 박봉희(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박순신(1) **이상 12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특별후원 : (주)유진메디케어 3,000,000원

송경자 80,000원 / 박현성 100,000원

〈한빛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기효순(2) 김계자(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1) 광영현/장형기(2) 구성모(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옥(2)
김세연(2) 김용미(2) 김우주(1) 김인순(2)
김정석(2) 김태연(1) 김혜정(2) 남성현(2)
노신규(2) 류재남(2) 박건우(2) 박리래(2)
박상현(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1)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1)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신동연(2) 안국희(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구(2) 우기후(2) 우춘자(2) 이강전(2)
이성림(1) 이소정(2) 이승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해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철만(2) 장현주(1) 전예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진하(2)
정향남(1)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정아(2)
김희량(2) 박민희(1)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정현주(2) 한재형(1)
함종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1) 성낙일(2) 오범균(2) 이웅기(1)
이재용(2) 정은영(2) 최갑석(2)

이상 30,000원

곽형우(2)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2)

이상 100,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평(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윤광이의 하루 회원 중 남윤광 군의 기사가 소

개된 책 '공주님의 치마'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전화/ 02-393-0661)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준(2) 윤준호(2) 이경주(1)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2)

이상 10,000원

김민정(2)

이상 15,000원

김정훈(2) 김중범(2) 신효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1)

이상 100,000원

통권 제 290호

발행일:2022년 7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월제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4 ~ 5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재단	28,006,874	인건비	급여, 보험	12,313,550
	동지/주간	6,950,000		일용잡급	96,700
	날개달기	4,496,000	운영비	수용비, 여비 등	5,863,457
	방정환기금	1,664,000	업무추진비	직책보조금 등	1,902,400
건물임대	관리비 등	2,562,815	간행비	소식지	665,000
	임대료	5,000,000		책 제작비	250,000
보조금	기타보조금	365,000	공공요금	통신비 등	1,366,040
기타	접수입	420,000	제세공과	보험료 등	666,800
				날개달기	5,436,000
			사업비	방정환기금	1,835,200
				기타사업	940,000
			전출금	동지, 주간보호, 지축	8,540,000
			상환금	원금, 이자, 대여	9,635,099
총계		49,764,689	총계		49,510,246

※ 위 보고는 재단본부 재정사항으로 장애인 시설 2곳과 지축복지관 재정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1년째 이어지는 텍사스 교민들의 기부

어느알지못하는사람에게 20년동안이나매월, 끊임없이돈을보내본적이있는가?

이때의 돈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지와 엄숙. 자신의 성취가 남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며,

세상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다는성찰. 이분들의 정갈한 혼(魂)이 한뼘을 씻기라.



김애자 여사

한뼘의 혼을 높이는 성금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와 ‘킬린’의 얼굴도 모르는 교민, 이분들은 장애인 돕는 일이라는 것만 알 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래서 한뼘도 높아진다. 이 성금에는 떠나온 고국에 대한 추억과 염원도 묻어있어 숙연하다.

매월 만나서 받아야 하는 기부금

이상하기론, 기부금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간 이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단다. 매월 만나서 돈을 받았다고?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이 상상하기 힘든 심부름을 자청한 분이 달라스의 김애자, 킬린의 최정임 여사이다.



최정임 여사

1997년, IMF 때부터

달라스 김윤원·김애자 부부의 기부는 한국의 IMF 소식을 접한 1997년부터이다. 이후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그리고 2001년부터 아예 회원을 모아 지금까지 매월 보내고 있다. 당시 회원이던 최정임 여사는 2006년부터 자신이 사는 킬린에서 기부금 수금을 계속하고 계시다.

총 2억5천만원

21년말까지 기부금은 달라스 2억1천만원, 킬린 4천만원 총 2억5천만원이다. 한번 이상 기부자는 달라스 245명, 킬린 58명. 대부분 돈 많은 분들이 아니다. 김윤원·김애자 부부는 도너츠 가게 하나만 가지고 있고, 최정임 여사는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독신이다.

18년 동안 195회에 걸쳐 \$25,000을 기부한 스틸라 여사의 미용실에는 한뼘 외 여러곳의 기부함도 놓여 있단다. 여사의 가슴은 얼마나 많은 애틋한 사연을 보듬고 있을까?

※ 교민들의 개인별 기부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동해안 절경



삼척 초곡항 촛대바위

최근 휠체어 슬로프 설치. 동해안 최고의 해변 절경. 데크 이동(600m)

묵호등대 스카이벨리

높이 180m의 아찔한 높이, 사방 200도로 펼쳐진 바다 위



한 번 장애인 여행 02)702-1515

사 랫 세 상



“기부의 비밀”

45년 전의 100불

한бет 게스트룸의 첫 손님으로 미국 달라스의 김윤원·김애자 부부를 초청했다. 게스트룸은 두 분이 기부한 10만 달러로 마련한 터였다.

부부는 한бет 최초의 기부자였다. 45년 전 무작정 미국으로 떠날 때, 친구들이 봉사단체를 만든다는 말에 이민 밀천으로 품고 있던 160불에서 100불을 꺼내놓고 60불만 쥐고 떠났다.

목 메인 우정

무일푼의 이민은 고달팠다. 목수일과 청소업체 근무, 세탁소 운영으로 힘겹게 살다 도너츠 가게를 차린 1997년부터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장애인 건물 짓는다는 소식을 들곤 1억원을 쾌척했다. 한бет의 친구들은 목이 메었다. 20년 전부터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매월 돈을 걷어 보내왔다.

달라스 매스터코랄 단장

그 넓은 미국에서 사방으로 찾아다니며 손 벌리기가 어디 쉬운가? 사실 기부는 얼굴 보고 내놓기 마련이다. 친지라 해도 20년 넘게 우애를 지속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김 여사는 또 달라스 유일의 교민합창단장을 역임했다. 이 역시 모금하는 일이다.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 17년이나 맡았다. 돈이 많지도, 무슨 공명심도 없는 처지에 무슨 팔자소관으로 이 노릇을 계속하는 걸까?

견고한 내핍

이번 방문을 위해 제주도에 방과 차를 빌려주겠다는 회원이 있어 권했더니, 전에 가봤다며 나서지 않는다. 결국 장애인 동해안 여행 따라가는 것으로 대신했다. 미국서 온 고액기부자니 후할 만도 한데 관광길에서도 싼 숙소와 음식만 찾고 쇼핑도 않는다. 좋아하는 커피도 미국보다 너무 비싸다며 고개를 돌린다. 무엇이든 아끼고 참는 모습에 자신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떠날 때 부부는 싸구려 보따리를 4개나 감아쥐고 탑승장으로 들어갔다.

아낌은 삶의 진지요, 소비에 대한 공경이다. 연민과 기부는 이 같은 절제와 성찰에서 나온다.